

LS그룹, CI 선포 독자출범 공식화

산업용 전기·전자 글로벌기업 목표 ... 2004년 매출액 8조7000억원

LG전선그룹에서 이름을 바꾼 LS그룹이 3월1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CI 선포식을 갖고 독자그룹으로서의 출발을 공식 선언했다.

LS그룹은 선포식에서 “LS전선, LS산전, LS니코동제련, 가온전선, E1, 극동도시가스 등 6개 주력 계열사를 중심으로 사업 시너지 창출과 신사업 진출 등을 통해 산업용 전기·전자 및 소재분야 전문기업으로 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자홍 회장은 “<고객과 함께 하는 기업>이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회에 공헌하며, 임직원들의 꿈을 실현하는 기업이 되도록 할 것이며, CI 선포를 계기로 산업용 전기·전자, 소재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LS는 CI 선포 이후 국내외 방송과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 브랜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특히 해외 전략지역인 중국, 인디아, 중동시장에 브랜드를 알리는데 힘쓰기로 했다. 또 해외법인과 지사, 각종 해외 전시회 및 세미나를 통해서도 브랜드 알리기에 나서는 한편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CI 선포식에는 맹형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구분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李濱 중국대사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했다.

LS그룹은 LS전선과 LS산전 등 17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2004년 매출 8조7000억원, 영업이익 5000억원을 기록했고 자산규모는 5조7000억원으로 국내 민간기업(민영화된 공기업 제외) 중 15위 수준이다.

<화학저널 2005/03/15>